양촌선생 "주역천견록" 해제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시설(詩設)

5

이 시의 작자는 문왕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밀리 떨어진 나라에 사는 부인이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문왕의 덕화가 멀리까지 사람들에게 파급되었으며 깊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을 모두 상상해 볼 수 있고. 하늘의 이치가 사람의 마음에 있음도 믿을 수 있다.

아! 세상에서 교화를 시키기 가장 어려운 것이 부인이다 처신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역경(逆境)이다 부인이 역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화평하고 말이 진실된 것은, 성정(性情)의 바름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문왕의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주남' '소남'의 교화가 지극한 까닭이다.

6

주자는 "집전"에서 <관저>에 대하여 "후비의 성정이 바른 그 일단을 알 수 있고, 시인의 성정이 바른 그 전체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갈담>에 대해서는 소서(小序)를 인용하여 "후비의 근본"을 읊었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갈담>을 중요하게 여긴 듯하다. 그러나 또한 생각하기를 <관저>는 그 전체를 들어 말한 것이고, <갈담>·<권이>·<규목>·<종사>는 모두 각기 한 가지 일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니, 또한 <관저>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앞에서는 <관저>를 후비의 성정이 바른 그 일단과 시인의 상정이 바른 그 전체를 알 수 있다고 하고서, 뒤에서는 <관저>가 후비의 전체를 들어 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앞과 뒤가 같지 않으니 어째서인가?

<관저>는 후비의 덕이 군자의 배필이 되기에 마땅한 것을 두루 말한 것이오. <갈담>은 후비가 직접 지은 것으로 후비가 갖춘 덕의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후비가 군자의 배필이 되기에 합당한 까닭은 후비가 이러한 덕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서에서 <갈담>을 후비의 덕을 읊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갈담>은 부녀자의 직분을 닦는데 근면함을 읊은 것이며 <권이>는 군자를 섬기는 데 전념함을 읊은 것이며, <규목>은 후비의 은혜가 여러 첩실들에게까지 미침을 읊은 것이며, <종사>는 경사스러운 일이 자손들에게 친해짐을 읊은 것이니, 이들은 모두 후비의 덕 가운데 한 가지씩을 가리킨 것이다. 이에 반해 <관저>는 한 가지 일에 치우쳐 위주로 하지 않고 총괄적인 말로 찬미하였으니, 이는 후비의 덕 전체를 들어 말한 것이다.

예컨대 "저구새와 같이 정이 돈독하면서도 분별이 있는 것으로 해서 후비의 성정이 바른 그 일단을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주자가 특별히 <관저>의 나머지 뜻을 말한 것일 따름이다. 시인에 이르러서는 그 애달픔과 기쁨을 극도로 하면서도 모두 법도를 지나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애달픔과 기쁨을 갖춘 것으로서 성정의 전체를 볼 수 있다 "집전"은 앞과 뒤가 서로 밝게 들어나 남김이 없다.

7

'소남'의 <채번(采蘩)>에 대하여 "집전"은 "제사를 받드는 일을 읊은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 몸소 누에치는 일이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주남'에 <갈담>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제사를 받드는 것'이나 '누에를 쳐서 옷을 짓는 것'은 일은 다르나 부녀자의 직책을 수행함은 동일하다. 비록 앞의 '제사를 받드는 것'이라는 설을 주장하여 말하더라도, '주남'의 <갈담>과 같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순서가 <작소(鵲巢)>의 바로 다음 차례에 놓인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제사를 받드는 일은 다음 편의 <채빈>에 나오니, <채번>은 아마도 몸소 누에치기를 하는 일을 읊은 것이 당연하다고도 한다. 그러나 만약 옷을 짓는 일을 읊은 것이라면 <갈담>과 같이 근면 검소하고 헌옷을 빨아 입어 차마 싫증을 내서 버리지 않는 뜻이 있어야 할 것이며, <칠월(七月)>과 같이 근면하고 삼가며 미리 대비하여 감히 편안히 놀지 않는 뜻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채번>을 보면 일을 시작함에 순서가 있고 일을 마쳐서는 위의가 있어, 장엄하고 엄숙하며 사랑하고 공경함이 지극할 따름이다. 그러니 <채번>은 제사를 받드는 일을 읊은 것이 의심할 바 없다. 이것이 "집전"에서 앞의 제사를 받드는 일을 읊은 것이라는 설을 주장한 까닭이다. "시경"을 편집할 때 다만 바른 성정과 부드러운 말투를 취하였으니, 일이 중복된다고 해서 어찌 해가 되겠는가?

8

<행로(行露)>에서 여자가 예(禮)로써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 착하도다.

그런데도 여전히 강제로 포악하게 능욕을 하려는 자가 있는 것은 그 풍속이 아직 다 고쳐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풍속이 모두 바르지 못한데도 그 시가 정품(正風)이 된 것은 어째서인가?

사람들은 평상시에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그다지 대단하게 여길 것이 못되지만 어려움에 닥쳤을 때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강제로 포악하게 능욕하려는 자로부터 더럽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비록 감옥으로 끌려가더라도 변하지 않고 스스로 지키려는 바를 이처럼 확고히 하였으니 매우 대단하게 여길 만하다.

여자의 정숙하고 순결함이 이 정도에 이르렀으니, 그 올바름이 어떠한가? 예컨대 강포한 자는 아직도 완전히 변화하지 않음이 있는 자다. 인간의 타고난 자질은 각기 다름이 있고, 나아가고 멈춤이 같지 않다. 만약 자포자기를 한다면 아무리 성인이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교화를 통해 변화시킬 수 없다. 하물며 멀리 남쪽 나라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랴? 봄이 오더라도 골짜기에 그늘이 졌거나 동이를 머리에 인 채 별을 쪼인다면, 하늘에 해가 있어도 어찌할 수 없다.

강포한 자라도 문왕이 편 아름다운 덕의 교화를 해치지 못한다. 그러나 땅에는 멀고 가까움이 있고 교화에는 깊고 얕음이 있다. 예컨대 '주남'의 경우 토끼 잡는 사냥꾼도 모두 공후의 심복으로 덕을 갖추었거늘 <행로>에 나오는 이같이 강포한 자가 있으리오? 대개 '소남'의 교화는 '주남'에 비교해 본다면 차이가 있으니, 멀고 가깝고 앞서고 뒤쳐지는 형세가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행로>의 남자와 <강유사(江有汜)>의 적처(嫡妻)가 있다. 그러나 <행로>의 여자가 갖춘 정숙과 순결 및 <강유사>의 잉첩(媵妾)들의 믿음과 의리는 이 때문에 더욱 빛나니 진실로 정풍(正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연재

古 訓 新 鑑

▣ 입암서원유사 권 태 수

〈지난호에 이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그 앎을 실천하여 생활화 하지 않으면 교만과 번뇌가 더 할뿐 진리의 길, 즉 선을 행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백낙천의 많은 명문(名文) 시구(語句)들은 이러한 知行合一(지행합일)의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다.

[例話]2

– 조선 말기 통감부 시대의 일이다.

미술가들의 전국적인 모임인 조선미술협회가 창립되어 그 기념 전시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본 고관과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노의 우두머리 급들이 대거 참석 하였다. 그 매 바른 소리 잘하는 월남(月南) 이상재(李商在)도 참석하였다.

이상재 선생은 매국노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데 어쩌다가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그러자 선생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감네들은 그만 동경(일본의 서울)으로 이사를 가시지요." 그러자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이완용이 물었다. "영감, 별안간 그게 무슨 말씀이오?"

"대감네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으니 동경에 가면 이번에는 일본이 망할 것 아니오.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나라를 되찾으려 하오"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대답하자 매국노들은 얼굴을 붉힌 채 식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所惡於山으로 毋以使下하며 所惡於下로 毋以事上하며 所惡於前으로 毋以先後하며 所惡於後로 毋以從前하며 所惡於右으로 毋以交於左하며 所惡於左로 毋以交於右하니 此之謂 絜矩之道也니라.

윗사람에게 싫다고 느껴진 것을 아랫사람에게 시키지 말 것이요 아랫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껴진 것으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 것이요 앞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껴진 것으로 뒷사람에게 먼저 하지 말 것이요 뒷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껴진 것으로 앞사람을 따르지 말 것이요 오른쪽 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껴진 것을 왼쪽사람에게 건네지 말 것이요 왼쪽 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껴진 것을 오른쪽 사람에게 건네지 말 일이니 이것을 혈구지도(絜矩之道)라고 한다.

본문은 絜矩之道를 설명한 것으로 예를 들면 윗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함을 원하지 않는다면 나의 이 같은 마음으로 아랫사람에게 나에게 대한 마음을 촌탁(忖度:남의 마음을 미루어서 헤아림)하여 나도 역시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또 아랫사람이 나에게 불충(不忠)하게 대함이 싫다면 나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윗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나도 윗사람을 불충하게 심기지 말 것이니 자기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의 상, 하, 전, 후, 좌, 우(上, 下, 前, 後, 左, 右)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심법(心法)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혈구지도' 인 것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실행한다면 이 세상은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위에 정의롭고 살기 좋은 낙원천하(樂園天下)가 될 것이다.

결국 혈구지도는 論語의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는 말과 뜻이 같고 나아가 中庸에서 말하는 '아들에게 바라는 것으로서 아비를 섬기고 신하(下立者)에게 바라는 것으로서 임금(上立者)을 섬기고 아우(年下者)에게 바라는 것으로서 형을 받들고 벗들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베푼다.(所求乎子 以事父 所求乎臣 以事君 所求乎弟 以事兄 所求乎朋友 先施之)는 적극적인 윤리로까지 발전되는 추기급인(推己及人)의 道인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23회〉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橃)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충재 선생 68세 때(인종 1년 ; 1545, 을사년) 5월에 숭정대부 의정부 우찬성 겸 지경연 판의금부사에 임명되니 사면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해 5월 6일(정묘) 1번째 기사에 「우찬성 권벌이 체직을 청하다」라는 제목으로 된 기록에는,

우찬성 권벌이 아뢰기를, "소신(小臣)은 시골에서 나고 자라 스승과 벗에게 배우고 물은 학문의 힘이 없는데다가 총명이 날로 줄어 가고 늙어서 더욱 정신이 어둡고 몸이 쇠약합니다. 선왕(중종) 때에 외람되게 정2품에 올라 늘 황공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더구나 이 1품의 홍화(弘化;덕德으로 널리 감화感化시키는 일) 하는 지위가 어찌 신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재능을 헤아리지 않고 등용하는 것도 국가의 복이 아니니, 이제 신정(新政)의 처음을 당하여 더욱이 마땅한 사람을 가려서 맡겨야 할 것입니다. 신처럼 어리석은 자는 결코 구차하게 재직할 수 없으니, 빨리 체직시켜 주소서."하니, 답하기를, "대행성상(大行聖上;중종)께서 어찌 범연하게 생각하여 하셨겠으며, 나도 어찌 물정에서 본 것이 없겠는가. 사퇴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해 5월 23일에 좌찬성 이언적이 아뢰기를, "권벌(權橃)·유인숙(柳仁淑)은 다 먼저 벼슬하고 노성(老成)한 사람인데 신이 뒤에 벼슬한 사람으로서 좌목(座目)은 두 사람보다 높은 줄에 있으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당초 숙배(肅拜)할 때에 곧 사피하려 하였으나 고례(古禮)를 몰라서 사피하지 못하였는데, 요즈음 뒤미처 들으니 예전에도 이러한 예(例) 【선왕(중종) 때에 김응기(金應箕, 1457-1519, 한성부판윤, 이조판서, 좌의정, 영중추부사 등 역임)가 좌차(座次) 때문에 먼저 벼슬한 사람에게 사양하였다.】(중종4년, 1509, 1월 16일 기사)가 있었다 하므로 감히 아룁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에서는 벼슬을 가장 존중하는 것이고 이제도 낙점(落點)의 선후로 차례를 삼았으니, 하루 사이에 형세가 혹 이렇게 되었더라도 쉽사리 고칠 수 없다. 사피하지 말라."고 하였다. 훗날 선조 3년(경오년 ; 1570년) 사암 박순(朴淳, 1523-1589, 대사헌, 이조판서, 영의정)은 장계(狀啓)를 올려 문형(文衡 ; 대제학大提學)을 퇴계 이황(李滉)에게 돌리기를 청해 마침내 제학(提學)으로 내려갔다. 그 때 사론(士論)은 박순의 양보를 찬미하였고, 곧 이황도 이를 사양하여 체직되자 박순이 또 돌아와 문형을 맡았던 기록이 전한다("사암집思庵集") 박순은 충재 선생의 신도비명(「冲齋權先生神道碑銘 幷序」)를 찬(撰)한 인물이다.

그해 7월 초하룻날 인종이 승하(昇遐)했다. 특명으로 삼공(三公)과 함께 충재 선생과 회재 이언적이 원상(院相: 임금이 죽은 뒤 26일 간 모든 정무와 군국기무를 총괄하는 임시벼슬)으로 임명되었다. 4일 후인 7월 5일에 윤원형의 무리가 인종의 재위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법대로 상복을 시행하여 않으려 하였다.

이에 영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의정 유관(柳灌), 좌찬성 이언적(李彦迪), 우찬성 권벌(權橃), 좌참찬 정옥형(丁玉亨), 우참찬 신광한(申光漢), 이조판서 유인숙(柳仁淑), 예조판서 윤개(尹漑), 병조판서 이기(李芑), 공조판서 허자(許磁), 대사간 구수담(具壽聃), 부제학 나숙(羅淑), 집의 송희규(宋希奎)가 경원대군(慶原大君 : 후일 명종明宗)에게 성복(成服 :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喪服을 입기 시작하는 것. 국상國喪에는 임금과 왕비가 승하한 뒤 5일 만에 대렴大斂하여 빈전殯殿을 만들고 그 이튿날에 성복한다) 등 상례에 대해 서계(書啓)하기를,

"신들이 『춘추春秋』의 의리를 살피옵건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계승하고 형이 죽으면 아우가 계승하니, 명호(名號)는 같지 않을지라도 그 세습(世襲)이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미 나라를 주었으면, 전해 받은 사람은 그 아들이 아니라도 아들의 도리가 있고, 전한 사람은 그 아버지가 아니라도 아버지의 도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대행 대왕(大行大王 ; 인종)께서 이미 유교(遺敎)하여 대군에게 전위(傳位)하였으므로 아버지의 도리가 있으니, 대군께서는 아들의 도리를 다하셔야 하며, 모든 상제(喪制)는 한 결 같이 예문(禮文)대로 하셔야 합니다. 대군께서 이미 대행왕에게 아들의 도리를 다하였으면, 대비(大妃 : 인종왕비인 인성왕후仁聖王后)에게도 마땅히 어머니로 섬겨서 효도를 다하여야 합니다."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형제의 명분이 있기는 하나, 군신·부자의 도리가 크니, 이 뜻을 알아서 상례를 다하셔야 합니다. 내일은 또한 제복(除服)하는 날이니, 늘 이것을 유념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경원대군이 비망기(備忘記)로 윤인경 등에게 답하기를,

"아들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과인(寡人)의 뜻에도 그지없다. 그러나 지금 나이가 어리고 또 역질(疫疾 ; 홍역紅疫)을 겪은 지 오래지 않으므로 곡림하는 모든 일을 뜻대로 하지 못하였으니, 지극히 미안하다. 그러나 다른 일은 극진히 할 생각이다."라고 하였다.

이때 우찬성 충재 선생이 들어가 윤인경에게 고하기를 "대군께서 내일 성복에 나오시지 않는다 하니, 이것은 크게 관계되는 일로서 행하지 않으면 사위(嗣位)하는 처음에 인심을 수합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하니, 대신이 아뢰지 않아서는 안 된다. 또, 지난겨울 12월에 역질을 앓고 이제는 이미 오래 되었는데, 무엇이 구애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윤인경이 아뢰려 하는데, 호조판서 임백령이 말하기를 "비망기에 극진히 할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성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니, 먼저 여쭈고 뒤에 아뢰는 것이 어떠하겠는가?"라 하고, 다시 충재 선생이 말하기를 "일찍 결단하는 것만 못하니, 빨리 아뢰어야 한다."라고 하니 윤인경이 그제야 드디어 아뢰었다.

윤인경 등이 아뢰기를, "여느 때에는 혹 예문대로 따르지 않기도 하나, 내일의 성복으로 말하면 예절의 큰 것이니 반드시 성복해야 사위하고 수하(受賀)하는 예가 완전해질 것이고 온 나라 신민의 마음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예가 완전해지지 않고 인심이 정해지지 않을 것인데, 이제 바야흐로 인심을 수합할 때이니, 유념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니,

답하기를, "역질을 겪은 지 오래지 않으니 이 때문에 미안하다. 모두의 뜻이 이러하니, 성복하는 모든 예를 죄다 거행하겠다."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道山學叢書

十七世紀의 政治社會的 狀況과 晩悔·炭翁의 歷史的 位相

17세기 정치사회적 상황 만회 탄옹 역사적 위상

李佑成 (성균관대명예교수)

〈지난호에 이어〉

論道山之學

1. 仁政德治의 '王道'를 주장함

Ⅲ. 심성론

권득기 ·권시 부자는 더 나아가 理氣가 相合하고 理가 주재가 되는 우주본체론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그 심성론을 서술하여 사람들에게 '天道'의 전체를 체득해야만 비로소 사람이 도덕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즉 理의 우주본체에서 비롯하여 사람의 도덕본체에 나아가야 天理에 부합하는 인간세계를 건립할 수 있음을 인식시켰다.

1. 人性의 유래에 관하여

권득기의 입장에서 보면 人生은 우주의 大化流行하는 도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자연계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인즉·朱子가 말하는 "天人一氣, 天人一理"인 것이다. 때문에 그는 "生之爲性, 指其賦於人者, 合理氣言也('晩悔集·僭擬' 卷3)"이라 하였다. 권시 또한 "天地造化 陰靜爲形,陽動爲神 形生神, 知理宰爲性, 由是能虛靈知覺('炭翁集' 卷11 '論心論')"이라 하였다. 이는 인성에는 이미 자연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이 있음을 표명한 것이니 그러므로 "理와 氣를 합해서 말한 것"이다. 권득기는 또한 '周易·繫辭'의 "繼善成性"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인성의 유래를 설명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生生之理"를 인성의 근원으로 보아 비록 순수지선일지라도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것은 단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다. 만약 그것을 현실의 인성으로 변화시키려한다면 또한 하나의 실현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니, 즉 이른바 "繼之者善"이 그것이다. 나면서 "生生之理"를 갖추고 아울러 그로 하여금 현실적 인성을 갖추게 해야만 비로소 理의 우주본체에서 사람의 도덕 본체로 넘어가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니 이른바 "成之者性"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권득기는 인성을 우주 본체의 理에서 유래하는 것이라 보았다. 동시에 그는 또한 人과 物의 탄생은 비록 "똑같이 천리를 얻는 것"이나 人과 物의 性에는 오히려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여겼으니 이는 그중 어떤 도리인가? 그는 人과 物의 性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동방의 성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人稟二氣五行之'秀' 故爲萬物之'靈'이라 여겼다. 권득기는 주자의 이 문제에 대한 견해에 찬동하여 人과 物이 비록 "다함께 한가지 이치를 얻으나" 그렇지만 품고 있는 氣에 偏正과, 通塞의 차이가 있고 理를 얻음에 있어서는 편벽되고 온전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人과 物의 性에도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주자는"人物之生, 同得天理之理以爲性, 同得天地之氣以爲形, 其不同者, 獨人于其間得形氣之正, 而能有以全其性爲少異耳 雖曰少異, 然人物之實在于此.('孟子集注' 卷4)"라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아 권득기의 인성의 유래에 대한 분석이 역시 추상적이라 사회 근원상에서 사람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필연적으로 사람의 도덕성이 인류사회의 경제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비록 이와 같기는 하나 그는 인류발생학의 각도에서 人과 物의 性의 차이를 설명해왔고 사람이 기타 동물보다 우월함을 설명했으니 이는 역시 의의있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